

# 북한의 중장기 경제 추세와 2022~23년 북한경제 평가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uklee@kdi.re.kr

## I. 머리말

외부 세계의 북한경제 연구가 힘들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 이후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도 쉽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재의 북한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외부 관찰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더욱이 이처럼 다른 의견은 이제 서로 너무 멀어져, 서로를 납득시키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북한경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치열한 논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미 없는 꼬덕거림'만이 자주 목격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22년 북한경제의 모습을 진단하고 2023년을 간단히 전망하는 것이다. 사실 『KDI 북한경제리뷰』에서는 매년 초반 해당 연도의 북한경제를 평가하고 이후의 경제 흐름을 전망하는 특집 논문들을 발간한다. 이를 위해 북한경제의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는 개별 논문들과 이를 집대성하여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총괄 논문 등 두 가지 형태의 논문을 준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중 2022/23년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 논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년과 같았다면 본 논문은 관련된 분야의 개별 논문들을 집약하고, 이들의 주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총괄적인 개념의 틀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였을 것이다.<sup>1)</sup> 그러나 조금은 치기 어린 일탈일지 모르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다른 관찰과 시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2022/23년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두드러진다. 현재의 북한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편에서는 2022년 북한의 시장 물가가 과거보다 몇 배나 오르는 등 불안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인도주의적 위기로까지 진행될까 우려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곡물 생산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럴 걱정은 없다고 본다. 2022년에 북한 무역이 크게 늘어났으니 이미 북한경제는 저점을 지나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현재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무역의 자그마한 변화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여전히 최악의 경제 상황에 있고, 북한의 무역규모는 이를 반영하여 그냥 들쭉날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찰과 시각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적인 개념 틀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는 슬기로운 일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러한 차이를 그대로 수면 위에 드러내어 서로 간의 진지한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 외부 세계의 북한경제 이해를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2022/23년 북한경제의 분야별 분석 논문들의 내용을 집대성하는 예년의 관행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022/23년 북한경제의 분야별 동향에 시각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2016년 이후 북한경제의 중장기 경제 추세를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2022/23년 북한경제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엄밀히 가늠해 본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22/23년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왜 서로 다른 견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날 것 그대로의 형태로 드러낸다. 이들 견해들은 공개적인 출판물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관찰자들 상호 간의 비공식적 토론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본 논문은 예년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논의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발표된 논의들이 상당수 차용된다. 2016년 이후 북한경제의 중장기 경제 추세에 대해서는 벌써 상당한 기존 논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본 논문 필자의

1) 2022/23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본 논문과 함께 3편의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는 개별 논문들이 출간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규철, 「북한의 무역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할 것인가?: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이석기, 「2022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3년 전망」, 김영훈,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을 참고하라.

개인적 시각에 의존한다. 이제까지 동일한 성격으로 『KDI 북한경제리뷰』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본 논문이 가장 강력하게 필자 개인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함께 발표되는 분야별 개별 논문들의 내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도 갖는다는 뜻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과 3장은 2016년부터 2022년 이전까지의 북한경제 추세를 분석한다. 2장에서는 2016년의 대북제재 이후 그것의 영향력이 북한경제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2017~18년의 무역 및 소득에서의 충격 그리고 2019년의 통화량 충격을 구체적인 관련 데이터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2020년 코로나 19 이후 脫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북한경제 시스템이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토론한다. 위기가 관찰되기 시작한 2020년 9~10월의 환율 하락과 식량 가격 상승 그리고 국제시장과의 환율 추세 이탈 현상 등을 먼저 살펴본 후, 이후 2021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위기가 어떤 형식으로 진화하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4장은 2022년 북한경제 동향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2023년을 간단히 전망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2022년 북한경제를 계기로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어, 서로 다른 견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역시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II. 대북제재와 2017~19년 경제 충격: 무역, 소득 그리고 통화량

2022년 북한경제가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수치나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 결과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직관적으로 쉽게 납득 가능하다. 현재의 북한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약재들 거의 모두가 2022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더해 2022년에는 급기야 북한 전역에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북한경제가 양호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22년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그것이 북한의 중장기 거시경제 추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1.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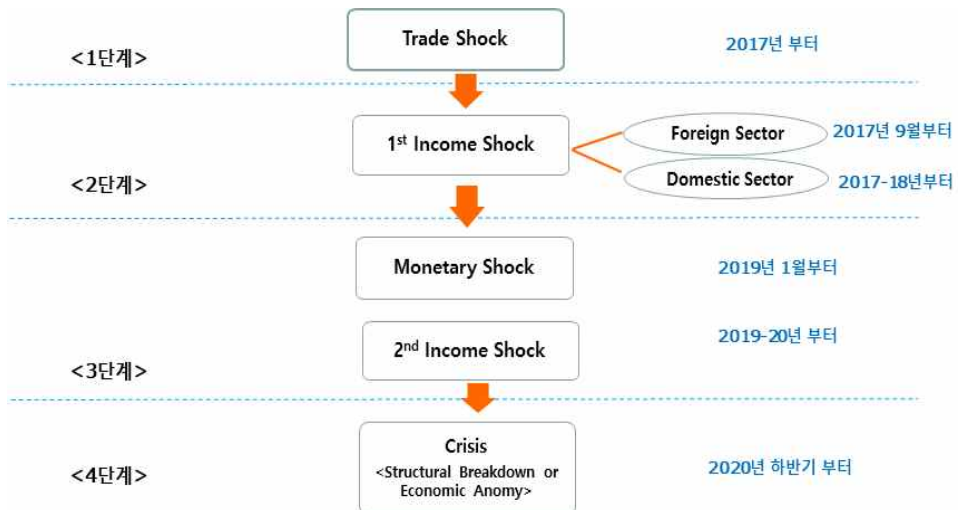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16년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은 물론 북한 당국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제재의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방증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의 충격은 그간 북한경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 물론 언뜻 생각하면 북한 역시 제재로 인해 시장 물가와 환율이 요동을 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들 대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물가와 환율의 상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제재 이전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에서는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환율은 사실상 시장에서 고정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시장 가격 역시 달러화(위안화)로 표시한 국제시장가격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고정된 환율과 달러화로 표시된 국제시장가격이 제재가 실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요동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환율과 가격의 변화는 제재의 충격이 북한경제에 누적되어 결국에는 북한경제가 더 이상 달러라이제이션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2016년 이후 북한경제에서는 실제 어떤 형식으로 제재의 충격이 전해진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선 제재가 효과적이라면 북한무역에서의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이다.<sup>2)</sup>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여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무역에서의 충격이 가시화되면, 북한의 소득 역시 하락할 것이다. 대외부문에선 벌어들이는 외화 소득이 우선 감소하고, 이것이 다시 내수 부문의 소득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북한의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북한경제 내부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달러화(위안화)가 경제의 기본 통화로 사용되는 이른바 ‘달러화된 경제(dollarized economy)’이기 때문이다. 제재로 인한 소득 하락은 결국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보유하는 달러화의 규모를 감소시켜 전체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화량이 감소는, 한편으로는 시장 물가를 하락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급격한 침체 및 이에 따른 추가적 소득 하락을 불러 올 것이다. 시장 물가는

2) 여기에서의 논의는 이석,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6월호, 2019를 따른다.

결국 화폐(통화)에 대한 여타 상품의 상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외생적 요인으로 급격히 줄어들 경우 물가는 하락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제재로 인해 무역과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는 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추가적인 침체를 불러 올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이미 어려움에 빠진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달러화된 북한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통화로 사용되는 달러화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제 내부의 일상적 거래활동 자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생산과 소비, 분배 측면에서의 혼란 역시 수습하기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달러화된 북한경제가 역전되어 ‘脫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의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재 이전 북한경제를 이끌어 왔던 달러화된 경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위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요컨대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에 대한 제재의 충격은 ‘무역 충격 → 제1차 소득 충격 → 통화 충격 → (시장 활동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제2차 소득 충격 → 위기(脫달러라이제이션과 기존 경제 시스템의 작동 정지)’라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충격: 형태와 시퀀싱



## 2. 2017~18년 무역, 생산 그리고 소득에서의 충격

그런데 2016년 이후 북한경제에서는 이러한 제재의 충격들이 그대로 실제의 현실로 재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선 북한의 무역을 살펴보자. <표 1>에 따르면, 2016년 60억달러에 육박하던 북중무역액이 2017년에는 50억달러 미만으로 주저앉았다. 이러한 감소세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2020년부터는 연간 10억달러조차 밀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에 본격화된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부터 북한의 무역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러한 무역에서의 충격은 당연히 생산의 침체로 연결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GNI 성장률 추정치에 따르면, 2017~21년의 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sup> 제재에 따른 무역에서의 충격과 이에 따른 거시경제 침체 현상이 이미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표 1>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2016~22년

(단위: 백만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2,634	1,651	195	216	48	58	134
수입	3,192	3,328	2,217	2,589	491	261	895
총액	5,826	4,979	2,412	2,805	539	319	1,029

자료: 한국 무역협회(<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3. 1. 30).

그리고 이러한 무역 및 생산에서의 충격으로 인해 2017~18년부터 북한경제에서는 심각한 소득의 하락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북한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GNI 성장률 추정치와 같은 수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하락은 몇 가지 분석적 결과와 지표들에 의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경제의 외화보유 규모가 2017년 이후 꾸준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한다.<sup>4)</sup>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의 변화이다. <표 2>는 2017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달리하여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 사이의 그랜저 인과성(Granger Causality)을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까지만

3)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북한 GNI 추정치를 참고하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

4)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장형수의 「North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Holdings) in 1991~2020: Estimation and Implications」를 참고하라. 또한 이러한 추정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는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22(1), 2019. 4 및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22(2) 2013을 참고하라.

하더라도 북한의 수입과 수출 사이에서는 별다른 인과적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sup>5)</sup>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더욱 많이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위해 수출을 추가적으로 늘려 더욱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필요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이는 북한이 수출과 수입이라는 상품 무역 수단 이외에 별도의 외화 소득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소득원을 통해, 굳이 수출의 확대를 연계시키지 않아도, 매우 탄력적으로 수입의 규모를 조절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관계는 2018년부터 변화한다. 2018년까지 기간을 확장하여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그랜저 인과성을 검증해 보면, 그 결과는 앞에서와 달리 매우 분명하게 ‘수출이 수입에 일방적인(one way) 그랜저 인과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북한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에 이미 수출을 먼저 늘려 외화를 확보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대북제재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북한의 별도 외화 소득원이 점점 위축됨으로써 이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의 규모를 우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별도의 외화 소득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위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2018년을 기점으로 북한경제가 보유하고 있거나 벌어들이는 외화 소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출과 수입 사이의 관계 변화가 결코 관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2〉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및 수입액의 그랜저 인과성 검증 결과

시차	기간 1(2013. 1~2017. 6)			기간 2(2013. 1~2018. 12)		
	종속변수(F 통계량)		인과관계	종속변수(F 통계량)		인과관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개월	1.903 (0.173)	1.233 (0.272)	수출→수입	1.944 (0.168)	9.245 (0.003)	수출→수입
2개월	1.338 (0.272)	1.362 (0.266)	수출→수입	0.962 (0.387)	4.987 (0.010)	수출→수입
3개월	0.993 (0.404)	2.356 (0.084)	수출→수입	0.666 (0.576)	4.639 (0.005)	수출→수입
4개월	0.479 (0.751)	1.746 (0.157)	수출→수입	0.871 (0.487)	3.342 (0.015)	수출→수입
5개월	1.662 (0.164)	1.448 (0.227)	수출→수입	1.776 (0.131)	2.709 (0.029)	수출→수입
6개월	1.646 (0.159)	1.086 (0.387)	수출→수입	1.779 (0.119)	2.332 (0.044)	수출→수입

주: ( )안은 p값. →, ⇒는 각각 95%, 99% 신뢰수준에서 나타나는 인과성의 방향을 의미함.  
자료: 이석,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6월호, 2019, p.23에서 전제.

5) 여기에서의 논의는 앞의 각주2에서 언급한 이석(2019)를 인용하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대외부문의 외화 소득 감소와 유사한 현상이 2018년부터는 국내부문에 서도 관찰된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평양을 비롯한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6년 이후 북한의 특정 시장가격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재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주택과 같은 상품은 약간 특이하다. 주택은 특성상 상대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시장 가격 변화는 주로 수요의 변화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당연히 소득이다. 그런데 북한의 주택가격은 2018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북한에서 거의 처음으로 관찰되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물론 이의 원인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내부문의 심각한 소득의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격의 하락은 그에 상응하는 수요의 하락에 의해 촉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수요의 하락은 다시 이를 촉발하는 소득의 하락과 같은 중요 변수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미 북한경제의 대외부문에서는 외화 소득이 유의미하게 하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8년을 전후한 북한의 주택가격 하락은 이미 대외부문에서 시작된 (외화)소득의 하락 현상이 국내부문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2016년부터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여파로 2017년에 이미 북한경제에서는 심각한 무역 충격과 그에 따른 경제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2017년부터는 대외부문의 외화 소득이 감소하고, 연이어 국내부문의 소득 역시 심각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아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 3. 2019년의 통화량 충격과 시장 물가 하락 그리고 경제 전반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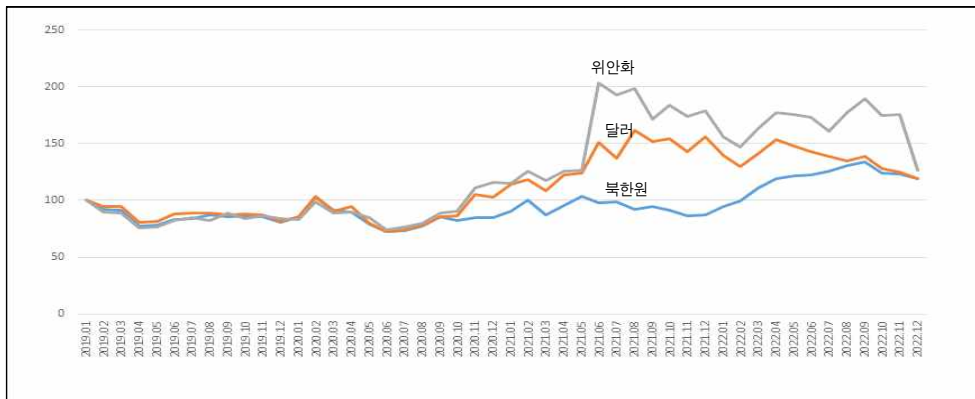
이러한 무역 및 소득에서의 충격은 2019년 들어 북한경제에 매우 특이한 현상을 몰고 온다. 제재로 인해 무역 축소라는 공급상의 애로 요인이 누적되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북한의 전반적인 시장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그림 2]를 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의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식량과 에너지의 대표적인 거래 품목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쌀과 옥수수, 돼지고기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2019년 1월 현재 이들 각 품목의 시장가격을 100으로 하여 기준점을 삼고, 이후 2022년 12월까지 해당 품목의 월별 시장가격을 100에 대한 상대 수치로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계산된 각 품목의 시장 가격들의 월별 평균값을 구해, 이를 ‘2019년 1월의 100을 기준으로 하는 일종의 가격 변화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시장가격은 북한 원화로도 표시되지만, 달러화 및 위안화 기준으로도 표시된다. 이에 따라 [그림 2]에서는 2019년 1월 이후의 가격 변화 지표를 북한 원화는 물론 달러화 및 위안화 가격 기준으로도 동시에 표시하였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북한의 ‘물가’ 지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고려되는 각 품목별 가중치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포함된 품목의 수도 정작 다섯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간의 북한시장 물가에 대한 하나의 참고 지표로서는 충분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림 2] 북한의 시장가격 지표 - 식량과 에너지

(2010.01=100)



	시장 가격 지표		
	북한 원화 기준	달러화 기준	위안화 기준
2019.01	100	100	100
2019.06	83	88	83
2020.01	86	86	84
2020.06	73	73	75
2021.01	91	114	115
2021.06	98	151	203
2022.01	95	139	156
2022.06	122	143	174

자료: Daily NK의 북한 환율 및 물가 관찰 자료(KDI 북한경제연구실 재정리)에 기초하여 저자가 작성함.

그런데 [그림 2]에 나타난 이 지표의 추이는 매우 흥미롭다. 우선 이 지표의 수치는 2019년 1월의 100에서 하락하여 적어도 2020년 중반까지는 100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 수치는 2020년 6월에 75를 기록함으로써 2019년 1월의 100에서 25% 정도나 하락한 것으로 계산된다. 당연히 이는 식량과 에너지로 표현된 북한의 시장 물가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중반까지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했음을 뜻한다. 더욱이 이 기간 중 [그림 2]의 지표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하기보다는, 2019년 초반 한 차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하향 조정된 이후 줄곧 유사한 물가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통화량 충격이 2019년 초반 북한경제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제재에 따른 소득의 감소가 누적되어 결국에는 2019년 북한경제에서 사용되는 외화 통화량의 규모 축소를 불러왔고, 그 결과 통화량의 감소에 상응하는 만큼 북한의 물가수준이 하락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물가의 하락 현상은 직관적으로도 특이하지만, 분석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만일 소득의 하락을 통한 통화량의 감소가 실제로 2019년 이후 북한의 시장 물가 하락을 주도하였다면 북한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당연히 이 경우 북한의 시장거래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래를 매개할 통화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시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로 인해 제재 이후 북한의 공식적 무역과 생산이 요동치는 과정에서도 전체 북한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이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통화량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거래의 위축에 빠진 것이다. 이는 2016년에 실시된 대북제재의 영향이 이제는 단순히 무역이나 국내의 공식적 경제활동을 넘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부문으로 까지 확산되었고, 그 결과 북한경제 전체가 사실상 제재의 영향권 안에 들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북한의 (시장에서의) 한계 계층이다. 이들 한계 계층은 배급제와 같은 북한의 공식 경제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그날그날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짐을 나르는 일꾼이나, 일반적인 허드렛일을 하는 주민들, 스스로의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와 같이 시장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 매우 직접적인 곤란을 느낄 것이다. 한편, 이들 보다는 덜하겠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 역시 충격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시장에서 매대를 운영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고, 심지어

는 시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북한주민들 역시 시장 거래의 위축과 소득의 하락 충격을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6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시장을 포함한 전체 경제를 영향권에 두고, 사실상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Ⅲ. 코로나19와 2020~21년 경제 위기: 脫달러라이제이션과 식량

앞에서 우리는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북한 무역의 하락 → 소득의 감소 → 통화량의 위축’이라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2017~19년의 실제 북한경제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했음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달러화된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 불가능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점도 토론하였다. 그렇다면 2019년 이후 현실의 북한경제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2020~21년 북한경제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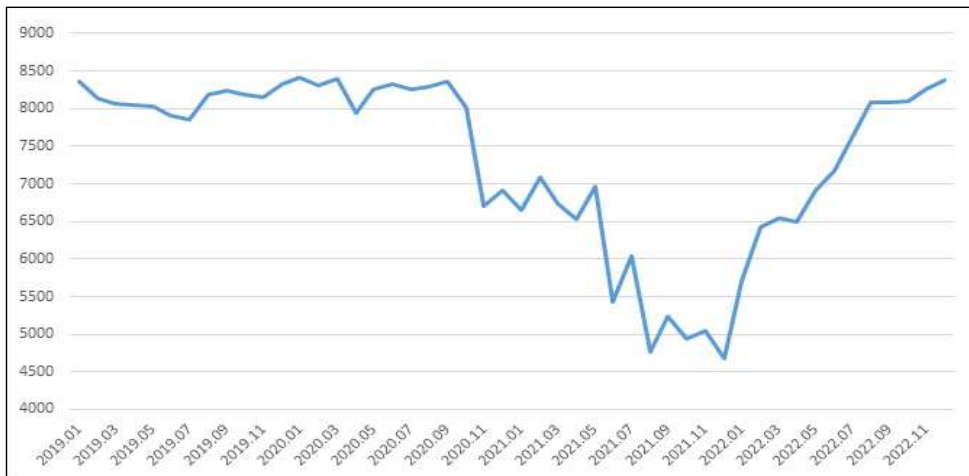
#### 1. 2020년 9~10월 위기의 시작: 脫달러라이제이션과 환율 그리고 옥수수

2019년 초반 관찰된 물가의 하락과 그에 따른 시장 거래의 침체 현상은 2020년 중반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여기에 2020년 초반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무역이 더욱 위축되는 현상이 더해졌다. 이미 본격화된 시장 거래의 침체 현상이 2020년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에 직면한다.

실제로 2020년 9~10월 북한경제에서는 이후의 거시경제 추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주목해야 할 현상이 발생한다. 이 중 두 가지는 북한의 환율과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시장가격, 특히 식량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것이었다. 우선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북한경제에서 달러화와 위안화 등 외화의 환율이 급락하게 된다. 외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대신 북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절상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는 광범위한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으로

달러화 등 외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이 사실상 시장에서 고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달러화 환율의 경우 대략 1달러당 8,000(북한)원 수준, 중국 위안화 환율의 경우에는 대략 1위안당 1,200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기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안정적이었던 북한의 원화 환율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달러화 대비 환율의 경우 2020년 말에 1달러당 7,000원을 하회할 정도로 급락하더니, 급기야 2021년 상반기에는 이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4,000~5,0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중국 위안화의 경우에는 이러한 하락폭이 더욱 커서 2020년 말 1위안당 1,000원을 밑돌더니, 2021년 중반에는 종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위안당 500~600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 김정은 정부의 등장 이후 대북제재의 시기에서조차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북한의 환율이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 것이다.

[그림 3] 북한의 달러화 시장환율 추이(북한 원/달러)



자료: Daily NK 북한 환율 관찰 자료(KDI 북한경제연구실 재정리).

더욱이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시장환율 체계가 국제시장의 환율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달러화는 물론 중국의 위안화 및 유로화 등이 모두 유통된다. 그렇다면 북한시장에서 달러화와 위안화 등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화와 위안화의 환율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지적에 있는 중국시장에서의 환율과 차이를 보임으로써

‘강만 건너면’ 곧바로 달러화와 위안화의 재정 거래(arbitrage)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시장에서의 달러화와 위안화의 환율은 사실상 국제시장에서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이 이러한 시장환율 체계는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붕괴하게 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한에서의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국제시장에서의 환율수준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북한에서 훨씬 더 높게 통용되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23년 현재까지 이어져 북한의 시장환율 체계는 여전히 국제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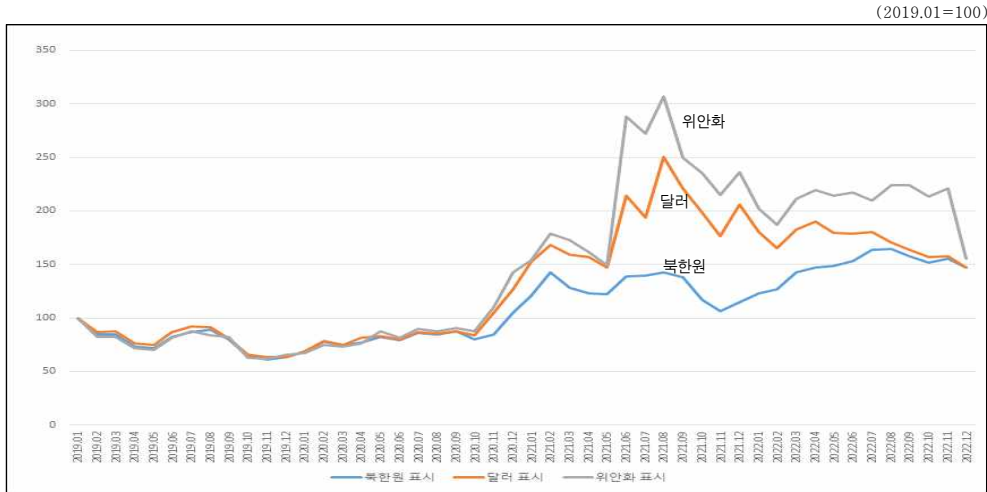
[그림 4] 북한시장에서의 중국 위안화 대비 미국 달러화 환율 추이(위안/달러)



자료: Bill Brown, KDI 발표 PPT, 'North Korea's Monetary System in Great Stress: Opportunities for Policy Adjustments', 2022. 7. 6.

한편, 이처럼 환율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시장에서의 식량가격, 특히 그중에서도 옥수수의 시장가격이 크게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실제로 [그림 5]에서처럼 중국 위안화 가격 기준 북한의 옥수수 시장가격은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중반에는 이전의 세 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달러화 가격 기준으로도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는 동일하게 관찰되며, 북한 원화 기준으로도 상승폭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승 추세만은 그대로 확인된다. 그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북한의 시장 물가가 2020년 9~10월 옥수수의 시장가격을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5] 북한의 옥수수 시장가격 추이



자료: Daily NK 북한 시장물가 관찰 자료(KDI 북한경제연구실 재정리).

그런데 이들 세 가지 현상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매우 분명한 것이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시켜 주던 그간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불가능해 졌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소위 ‘脫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 현상이 북한경제 내부에서 불가피해졌다는 뜻이다. 특히 이러한 脫달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제까지 유지되던 북한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일거에 무너짐으로써 시장을 필두로 하는 주요 경제활동에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존의 달러화된 북한경제의 해체와 그에 따른 혼란이 본격화하는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는 달러를 위시한 외화를 경제의 기본 통화로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의 [그림 2]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간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통화로서 기능하는 외화의 규모는 2019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시장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2019년 이후 북한의 시장에서는 달러화 등 외화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경제적 반응은 매우 자명한 것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활동에서 외화의 사용을 줄이고, 그만큼 북한의 원화를 더욱 많이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脫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의미이다.<sup>6)</sup> 일단 이러한

6) 일부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5월경부터 북한당국이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2020년 9~10월의 나타난 여러 현상은 본문에서처럼 자연적인 脫달러라이제이션의 과정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주도로 실시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의 진위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외부세계에 널리 알려진 시기는

脫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 외화의 환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에서 일상적 거래를 매개하는 통화의 하나로서 외화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20년 9~10월 이후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달러화 및 위안화 환율의 하락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달러화 및 위안화의 상대 환율이 국제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북한에서 달러화는 통화의 모든 기능, 예를 들어 가치의 저장 및 교환(거래)의 매개, 심지어는 회계의 기준으로서의 기능 등을 모두 수행하지만,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거래의 매개 기능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에서 교환의 매개 기능과 관련된 외화의 수요가 사라지는 경우, 북한주민들은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의 위안화보다는 미국 달러화로 외화를 보유하려는 욕구를 가질 것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수요가 더욱 크게 줄어들어 달러화 대비 환율이 국제시장에서 보다 더욱 위안화에 불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020년 9~10월 이후 북한 환율시장에서의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국제시장과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脫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북한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대답은 ‘아니요’, 또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쪽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북한경제에서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북한의 脫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은 통화로서의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성이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외화 통화의 가용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객관적 현실에 의해 강요된 현상이다. 따라서 이의 결과는 매우 자명해 보인다. 북한의 시장거래가 추가적으로 더욱 줄어들고, 이에 근거한 제반 경제활동 역시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 2009년 말 화폐 개혁 당시 북한 당국은 기존의 화폐를 폐기하고 신뢰성이 낮은 새로운 통화를 무리하게 남발하여 북한의 시장거래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은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한 것이 바로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었다. 그러나 2020년 9~10월 이와는 정반대의 脫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진행되면서 북한경제 내부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시 2009년 말 화폐개혁 당시와 유사한 시장 거래의 위축과 경제활동의 침체가 나타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옥수수과 같은 북한의 식량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물론 왜

---

2021년 상반기 이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단 2020년 9~10월의 脫달러라이제이션 경향은 자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입은 2021년 상반기 이후로 간주하여 뒤의 본문에서 논의한다.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초반의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무역의 차단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옥수수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에 따른 지속적인 소득의 감소, 특히 2019년 이후의 시장거래 침체에 따른 시장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이제 북한의 한계 계층은 식량 소비마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득의 하락에 따른 열위 식량 품목으로의 수요 전환이 만들어낸 특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2020년 9~10월 이후의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그 정도가 너무 크다. 특히 이러한 가격 상승과 동시에 脫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인한 시장 거래의 침체와 소득의 추가적 하락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옥수수 가격 급등은 북한주민들의 옥수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옥수수 구매 능력 자체를 제한하여 전반적인 식량 소비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조금 엉뚱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20~21년 한국경제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고, 그 결과 2022년 들어서는 시장에서의 아파트 거래 자체가 거의 완전히 실종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너무 급등한 아파트 가격은 이미 대다수의 한국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2020년 9~10월 이후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옥수수 가격의 상승 현상 역시 이와 유사할지 모른다. 이미 지속적인 소득의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한계 계층으로서는, 설사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 소비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식량인 옥수수의 가격조차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한계 계층을 중심으로 식량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한계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위기가 현실화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세계로서는 아마도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2020~21년 동안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에 극히 민감하여 북한 내부에 거주하던 외부 인사들을 모두 국외로 내보내는 등 해외와의 접촉을 아예 완전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북한경제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脫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그간 안정적이었던 시장 물가와 환율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한계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문제의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결국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하는 위기가 현실화 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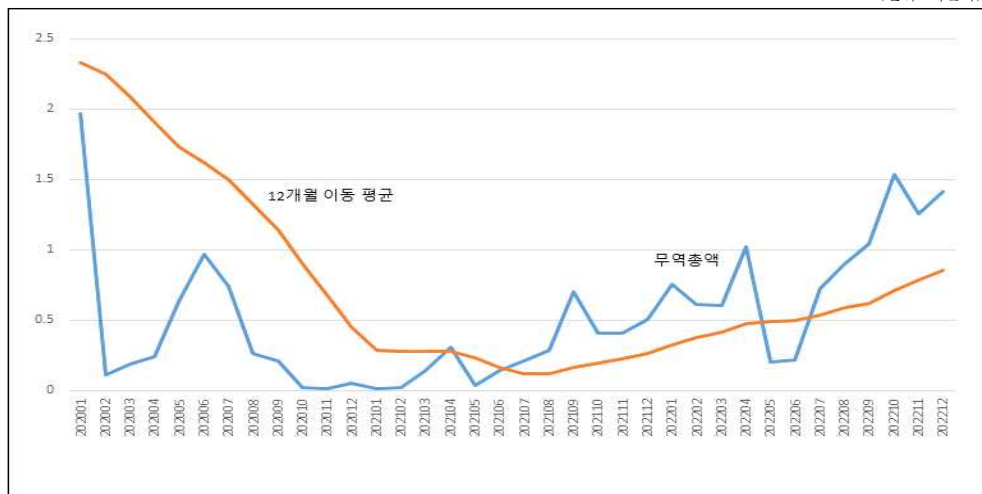
## 2. 2021년 하반기 위기의 가시화: 사라진 무역, 금지된 외화 그리고 쌀

이러한 북한경제의 위기는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1년 6월을 전후하여 북한경제에서는 다양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 네 가지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0년 초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행되었던 국경봉쇄의 영향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에 최고조에 이르러 이 시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둘째, 당시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북한의 시장 쌀가격이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2021년 하반기 들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외화의 사용을 금지하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나타났다. 2020년 9~10월 이후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脫달러라이제이션의 경향이 이제 북한 당국의 개입으로 더욱 강화된 것이다. 넷째,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적인 경제 현상들을 배경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북한경제 관찰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북한의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우선 [그림 6]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2020년 초반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의 대중무역이 급격히 감소하고, 특히 이러한 감소세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에

[그림 6] 월별 북중무역 총액 추이, 2020~22년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 무역협회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함.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반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은 사실상 제로로 떨어진다. 가뜰이나 어려운 북한의 경제 현실에서 그간 그나마 극히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중국과의 무역마저 2021년 상반기에는 아예 모두 사라진 것이다. 당연히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표시하는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의 시장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초반까지 1kg당 4,000원의 수준을 크게 넘지 않았던 북한의 시장 쌀가격은 2021년 6월에는 4,600원을 상회하고, 8월에는 5,000원을 돌파하더니 9월에는 5,400원 수준까지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폭은 달러화 및 위안화 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 기준 북한의 시장 쌀가격은 2021년 1월 kg당 4.1위안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최대 9.2위안으로 두 배 넘게 상승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의 2020년 9~10월 옥수수 가격의 상승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2021년 상반기 최저점에 달한 북한 대외무역의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쌀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가능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지속되는 소득 하락의 영향으로 이제는 중산층 이상의 북한주민들 역시 스스로의 식량 소비 패턴을 전환시켜야 할 정도로 긴급한 경제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에서 곡물, 특히 쌀에 대한 특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역시 가능하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는 전반적인 소득 상승을 배경으로 곡물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유제품이나 육류, 식용유, 가공식품 등 각종 비곡물 식품에 대한 소비를 늘려 왔다. 그 결과 곡물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이 하락하면서 2021년에 이르면 중산층 이상 북한의 경제주체들 역시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곡물에서 저가의 곡물로 식량 소비 패턴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 결과 곡물,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선호하는 쌀의 시장 수요가 특이하게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9~10월의 옥수수 가격의 상승과 마찬가지로, 매우 역설적으로, 소득의 하락이 쌀의 수요와 시장가격을 밀어 올리는 특이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2021년 상반기 이후 북한의 쌀 시장가격 상승은 북한경제 전반에 또 다른 충격을 주는 일이 분명하였다. 쌀은 북한의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포함하는 전체 주민들이 소비하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이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북한의 모든 계층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0년 9~10월의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주로 북한의 한계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 침체와 소득의 하락을 체감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면, 2021년 6월 이후 시장 쌀가격의 상승은 중산층 이상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현실을 실감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였는지 불확실하지만, 흥미롭게도 북한 당국은 2021년 하반기 들어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 9~10월 이후 북한경제 내부에서 진행되어 오던 脫달러라이제이션의 경향을 이제 북한 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공식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으로 확산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북한의 환율은 이제까지보다 북한 원화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대략 1달러당 6,000원 내외에서 거래되는 북한의 달러화 시장 환율이 2021년 8월에는 최저점인 1달러당 4,697원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 위안화 환율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21년 상반기의 대략 1위안당 900원 내외의 수준에서 2021년 8월에는 1위안당 564원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의 금지를 강제하면서 기존의 외화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흡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북한 원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이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북한 당국 스스로가 기존의 달러화된 북한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공표 또는 인정했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시스템이 2021년 하반기 들어 사실상 전면적으로 와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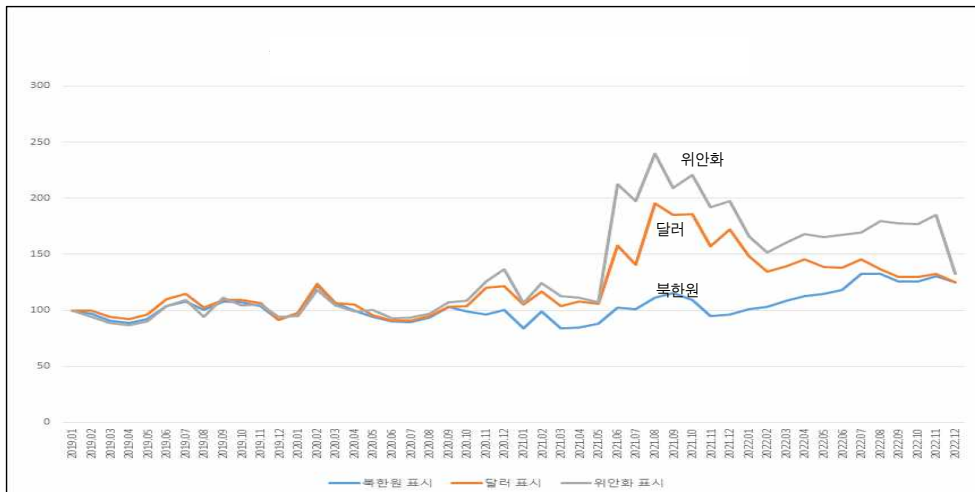
그런데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脫달러라이제이션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이를 통한 유리한 시장환율의 조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북한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림 7]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의 시장 쌀가격은 2021년 하반기 들어 달러화 및 위안화 기준으로는 크게 상승하지만, 북한 원화 기준으로는 다시 kg당 4,000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연히 외화의 사용 금지 및 이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환율 조성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일 이러한 환율의 조정 효과 없이 시장 쌀가격이 달러화나 위안화 기준 가격과 같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했다면 이는 북한 당국에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9~10월 기점으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2021년 6월 이후 쌀가격마저 폭등하는 경우, 북한의 한계 계층은 물론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비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2021년 하반기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 금지 조치가 결국에는 식량을 비롯한 시장 물가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바로 시장 거래 및 제반 경제활동의 추가적인 침체와 위축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그간 북한경제를 움직여 왔던 외화에 의한 시장 거래 및 경제활동들이 일거에 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당연히 추가적인 시장 거래의 침체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장환율 역시 무리하게 북한 원화에 유리하도록 설정될 경우, 이러한 침체와 위축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의 쌀 거래를 살펴보자. 달러화 및 위안화 기준 시장의 쌀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강제적으로 환율에 개입하여 북한 원화 환율을 유리하게 조성함으로써 북한 원화 기준 쌀가격을 하락시켰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이제 북한 원화로만 수행해야 한다고 공포했다고 하자. 이 경우 과연 북한주민들의 쌀 구매 및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북한 원화 기준 쌀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쌀의 구매는 외화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북한주민들 가운데 통화를 주로 외화의 형태로 가진 사람들은 당국의 불리한 외화 환율 설정으로 이를 북한 원화로 환전하여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쌀 수요는 북한 원화 기준 쌀가격이 하락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북한 원화를 주로 보유한 주민들은 환율 변화에 따른 쌀가격의 하락으로 구매를 늘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주로 북한에서

[그림 7] 북한의 쌀 시장가격 추이, 2019~22년

(2019.01=100)



자료: DailyNK 북한 시장물가 관찰 자료(KDI 북한경제연구실 재정리).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 계층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이다. 반면, 자산을 주로 외화로 보유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북한 원화 표시 시장 쌀가격을 하락시킨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쌀의 시장 구매와 소비가 늘어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의 쌀의 공급이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쌀 공급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북한주민들은 주로 외화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계산하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을 통한 인위적인 시장 쌀가격의 하락은 이들에게는 외화 기준 이윤의 대폭적인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쌀의 공급에 적극적일지는 미지수이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오히려 쌀 공급의 부족으로 시장에서의 식량 구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 당국이 환율을 통해 시장 쌀가격을 하락시킨다고 해도, 이는 결국 시장 가격 변수들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쌀의 거래와 소비가 늘어날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2021년 6월 이후 쌀의 시장가격 상승을 전후하여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 금지와 환율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북한 경제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 북한시장에서의 곡물 가격 변화를 계기로 한국과 해외의 북한경제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에서는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긴박하여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으로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만성적인 현상이고 특별히 2021년 하반기 이후의 상황을 추가로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sup>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이미 북한의 옥수수 가격은 급등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이후에는 쌀가격마저 상승하였다. 더욱이 2020~21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코로나19 통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일수 역시 제한을 받는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시장 거래의 제약 역시 확대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징후들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더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지의 목소리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졌다. 그 결과 한국과 해외의 일부 관찰자들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자칫 위기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농촌진흥청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상당수의 한국 관찰자들은,

<sup>7)</sup> 이러한 논란은 공개적인 출판물의 형태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KDI 북한경제연구실 주관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시각의 차이와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이의 내용을 가급적 간단하게만 언급한다.

비록 북한의 식량상황이 언제나 어렵기는 하지만, 2021년 이후 특별히 더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sup>8)</sup>

물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실상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통제로 북한의 현지 상황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가 극히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관찰자들 사이에서 2021년 하반기 처음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북한의 경제상황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문제에 대한 우려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2021년 상반기 이후 북한경제는 2020년 9~10월 이후 나타난 위기의 징후들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무역이 사실상 사라지는 등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안정세를 보였던 시장의 쌀가격이 급등하고, 마치 이러한 식량가격의 급등세를 무마(?)라도 하듯이 북한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고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급기야 2021년 하반기부터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우려로 논란마저 벌어지게 되었다. 2020년 9~10월 북한경제 내부의 脫달러라이제이션으로 시작된 위기의 징후들이 이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시장 개입과 식량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 IV. 2022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6년 대북제재 이후 2021년까지 북한경제는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2017~19년 무역, 소득 그리고 통화부문에서 충격이 나타나 사회주의 공식부문은 물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경제활동마저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0년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경봉쇄 이후에는 다양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났다. 2020년 9~10월 외화 환율의 하락으로 시작된 脫달러라이제이션의 경향은 2021년 하반기 북한 당국의 개입으로 본격화되었으며, 급기야 북한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연결되었다.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상징되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본적 경제 시스템이 와해되고, 그 결과 기존의 시스템이 달성했던 시장의 활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모두가 일거에 역전된 것이었다. 2022년 북한경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8)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김영훈,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호, 「최근 북한의 식량·농업 상황과 전망」을 참고하라.

## 1. 2022년 북한경제 분석 - 관찰과 해석

물론 2022년 북한경제의 출발이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2021년 하반기 북한경제에서 다양한 위기의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2022년이 시작되기 이전 이미 다양한 정책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처방전들 대부분은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 흔히 보이는 이른바 ‘말로(만) 하는 정책’이지, 현실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은 아니었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경제 현실에서 자력갱생을 외치거나, 몇 개년 사회주의 계획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들 처방전 가운데 두 가지만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 토목 및 건설공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후자는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하에서도 내부의 자원만을 이용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 최저점을 찍었던 북한의 대외무역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살아나기 시작하며, 특히 2022년 1분기에 들어서는 2020년 코로나19 봉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무역이 증대하였다. 실제로 2022년 1/4분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000% 이상이 증가함으로써 2020년과 2021년 1/4분기의 마이너스 증가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당국이 주도하는 토목 및 건설공사 역시 평양에서 진행되는 전국적 프로젝트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프로젝트들 역시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초반의 북한경제는 2020~21년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회복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으로 2022년 북한경제는 이들 정책들과 관련하여 곧바로 커다란 좌절을 경험하였다. 이들 정책을 배경으로 2022년 중반 북한에서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반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중국과의 무역은 불가피하게 북한경제를 대외적인 코로나19 위협에 더욱 노출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이 여전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북한경제는, 일단 대외적으로 코로나19가 유입이 되면, 이것이 국내적으로 매우 빠르게 전국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토목 및 건설공사들 거의 모두가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노력 동원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밀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코로나19가 유입되면 일정 지역 내부에서의 이의 전파 위험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초반 북한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된 일반 군중들을 평양에 집결시키는 대규모의 정치군사 퍼레이드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만일 평양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이는 그곳에서 개최되는 전국적인 정치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각 지역별로 빠르게 전파되고,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토목 및 건설공사들로 인해 해당 지역에 밀집된 인원들에게 다시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 당국은 2022년 5월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발생 사실을 공표하였으며, 이후 2022년 7월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선언하기까지 약 477만명의 코로나19 (발열자)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중국식의 강력한 봉쇄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다. 물론 북한 당국은 2022년 7월 이후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금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북한경제에서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었는지 여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심지어 2023년 현재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보고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는, 당연한 말이지만, 2022년 북한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주요 원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및 이에 따른 지역 봉쇄 등의 방역 조치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최소한 1분기 이상의 기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새로운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으로 인해 2022년 초반 크게 늘어났던 대외무역 역시 2/4분기 들어 다시 사실상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주민들의 자율적인 집합활동에 장애가 초래되면서, 시장 거래 등 각종 비공식 경제활동이 장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2020년 8~9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다시 늘어나고, 북한 내부의 경제활동 역시 점차 활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북한경제가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별다른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다. 비록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2022년 북한경제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만 고려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의 중장기 경제 추세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경제는 2016년 대북제재

9) 2022년 북한의 월별 무역 동향에 대해서는 본 논문과 함께 발표될 김규철, 「북한의 무역은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할 것인가?: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을 보라.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2017~19년 사이에는 무역, 생산 및 소득에서의 충격이 가시화되었고, 급기야는 외화 통화의 부족으로 시장경제마저 침체하여 제재의 영향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러한 충격이 더욱 확대되어 경제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脫달러라이제이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환율과 물가 등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일거에 흔들리는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脫달러라이제이션을 인정하면서 북한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문제마저 논란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2022년 북한경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위한 타개책이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연결되면서 제반 경제활동 자체가 일정 기간 중단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결코 2022년 북한경제가 전해에 비해 나아졌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북한의 경제 현실이 2021년이 아니라 오히려 2022년에 최저점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표 3〉 중국의 동북3성 및 상하이, 우한의 코로나19 전후 분기별 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1~2분기	1~3분기	1~4분기	1분기	1~2분기	1~3분기	1~4분기	1분기
우한	-40.5	-19.5	-10.4	-4.7	58.4	28.6	18.8	12.2	6.1
랴오닝	-7.7	-3.9	-1.1	0.6	12.9	9.9	7.4	5.8	2.7
지린	-6.6	-0.4	1.5	2.3	14.9	10.7	7.8	6.6	-7.9
헤이룽장	-8.3	-4.9	-1.9	1.0	12.4	10.3	8.0	6.1	5.4
상하이	-6.7	-2.6	-0.3	1.7	17.6	12.7	9.8	8.1	3.1

주: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중국의 지역별 성장률은 각 분기별이 아닌 1분기, 1~2분기 합계, 1~3분기 합계, 1~4분기 (연간) 합계 성장률임.  
 자료: 1) 우한시통계국(<http://tj.wuhan.gov.cn/>); 랴오닝시통계국(<http://tj.ln.gov.cn/index.html>); 지린시통계국(<http://tj.jl.gov.cn/>); 헤이룽장시통계국(<http://tj.hl.gov.cn/sy/>); 상하이시통계국(<https://tj.sh.gov.cn/>).

2) 이석, 「북한경제, 위기와 코로나19 그리고 다음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6월호, 2019, p.15에서 전재함.

이러한 추론은 2020년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난 코로나19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크게 후퇴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후퇴는 중국과 같이 거의 완전한 지역 봉쇄를 단행하는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경험한 중국의 주요 지방들이 거의 예외 없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좋은 증거이다. 그런데 2022년 북한은 공식적인 발표만 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20~25% 내외의 인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지역 봉쇄를 단행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북한경제가

2021년에 비해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

2022년 북한의 실제 경제현실은 북한 당국의 반응에 의해서도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2016년 대북제재 이후 경제의 어려움을 이른바 자력갱생으로 극복한다는 구호 아래 다양한 경제적 목표와 계획 그리고 성과들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2021년 이후 크게 약화되는 동시에 2022년부터는 이러한 계획과 성과들을 달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기반성과 질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분야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의 달성을 선동(?)하는 대신, 어쩔 수 없는 경제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난의 희생양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22년 북한당국의 경제분야 성과 홍보는 어느 때보다도 미진하다. 대신, 북한 당국은 이른바 경제의 사회주의적 통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22년의 경우 북한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북한 당국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으며, 그 결과 일반 주민들은 물론 북한 당국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 역시 매우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경제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어려움에 빠진 일반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자원마저 국가의 통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책적 반응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2022년 북한경제가 양호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이다.

## 2. 2022년 북한경제와 논란들

이처럼 2022년 북한경제는 2020년 및 2021년에 비해서도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마도 2022년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실제로 2022년의 북한경제와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은 ‘어려웠다’라는 판단에 동의한다. 북한경제에 대해 ‘언제나 서로 다른 시각이 대립하는’ 외부 관찰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의견 일치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이다. 왜냐하면 2022년 북한경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외부 관찰자들 사이의) 논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웠다’라는 대략적인 판단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에 있어 외부 관찰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다. 문제는 언제나처럼 존재하는 이러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이제는 좀처럼 화해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적인 논란을 벌인다면, 북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판단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2년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경제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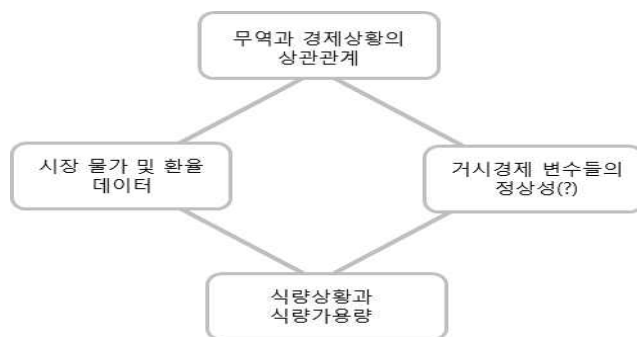
이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찾아내어 스스로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의 네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첫째, 북한 경제와 무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외부 관찰자들은 북한의 무역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북한의 경제상황이 더욱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무역이 늘어나면 북한경제가 좋아졌거나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물론 이는 엄밀한 것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2022년 북한경제를 계기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2020년대의 북한경제와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역의 변화를 곧바로 전반적 경제상황의 변화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의 <표 1>을 다시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10억달러 수준으로 2021년의 3억달러 수준보다 224% 증가하였다. 물론 이를 통해 2022년 북한경제가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나아졌다’라는 인식은 떨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2022년 북한경제에 있어 무역과 경제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의가 형성된다. 우선 2022년 북한의 무역은 증가율로는 224%이지만, 금액으로는 불과 7억달러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출이 약 8천만달러, 수입이 약 6억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 정도 액수의 증가로 과연 북한의 경제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제재 이전인 2016년과 2022년 북한의 무역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전자에 비해 증가율로는 82%가 감소했지만, 금액으로는 48억달러나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것과 2021~22년 사이 북한 무역의 변화 가운데 어떤 것이 더욱 큰 것일까? 증가율로 하면 당연히 2021~22년의 경우이지만, 금액으로 하면 이는 2016년과의 금액 차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들은, 2020년대 북한경제처럼 제재와 같은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무역이 절대적인 규모에서 이미 완전히 붕괴한 상태에서는, 무역의 변화를 읽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이것이 전반적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역의 증가/감소율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증가/감소의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전반적 경제상황의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22년 북한경제는 과연 어느 쪽일까?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2022년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라는 것을 제외하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시장 물가와 환율 데이터에 대한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북한의 시장 가격과 환율 데이터이다. 이들 데이터는 북한의 실제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관찰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록 이에 다양한 기술적 결함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내용의 신뢰성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북한경제를 계기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이의 극복을 위한 지역 봉쇄가 단행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북한의 시장거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앞서의 여러 그림들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기간 중에도 여전히 북한의 구체적인 시장 가격들과 환율 수치들이 보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무엇일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 및 환율 데이터일까, 아니면 거래와는 무관한 단순한 호가 데이터일까, 그도 아니면 또다른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이제까지 사용되어 온 북한의 물가 및 환율 데이터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시장 가격 및 환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이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규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엄밀한 분석이 의미가 있다는 새로운 의견으로 분할되고 있다. 문제는 본 논문을 포함하여 2022년 북한경제를 다루는 거의 모든 연구들은 이러한 가격 및 물가 데이터를 이미 사용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렇게 얻어진 결론이 얼마나 신뢰성 있을까? 이것이 2022년 북한경제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이다.<sup>10)</sup>

[그림 8] 2022년 북한경제와 주요 논란들



10) 이러한 이유에서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월호에서는 예년과 달리 2022년 북한경제의 시장 부문에 대한 별도의 분석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셋째, 북한의 시장 물가와 환율의 정상성 여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중 어떤 것이 과연 북한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의 여러 그림들에 나타나 있지만, 2020년 이후 북한의 시장 가격은 북한 원화와 달러화 그리고 위안화 기준으로 표시할 때 각각 그 변화의 폭과 추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앞서의 [그림 5]에서 나타나는 옥수수의 시장가격은 2019년 이후 위안화 기준으로는 최대 4.9배가 상승하였지만, 북한 원화 기준으로는 최대 2.7배 정도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21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위안화 및 달러화 기준 옥수수 시장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같은 기간 북한 원화 기준 시장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의 실제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옥수수의 시장가격 추이는 과연 무엇일까? 위안화 및 달러화 기준 가격일까, 아니면 북한 원화 기준 가격일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의 북한 가격 및 환율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라는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지만, 2021년 하반기 이후 북한 당국은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북한 원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시장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율은 북한의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있어 그렇게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삼시간에 외화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위의 옥수수의 경우 2021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위안화 및 달러화 기준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북한 원화 기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이 기간 중 북중무역이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위안화 및 달러화 등 외화의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북한시장 물가와 환율이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매우 특수한 요인들에 의해 임시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가격과 환율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특히 2022년 북한경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현재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북한경제는 북한 원화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와는 달리 위안화 및 달러화 등 외화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것이다. 외부의 관찰자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북한의 식량 상황을 가용량(Availability)의 규모로 판단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로 인해 언제나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식량 상황의 결정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이러한 상황에 일정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의문은 2022년 북한경제에 있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왜냐하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북한의 곡물 생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앞서의 그림들에서 보듯이, 이 기간 중 북한의 식량가격

및 소득 그리고 식량의 소비 패턴 등이 모두 '식량 상황의 극적인 악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1년은 물론 2022년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서도 '예년과 비슷하게 언제나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과 '위기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시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중 과연 어느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일까? 그리고 과연 앞으로 이 때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식량 상황을 가용량의 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와는 다른 경제학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것일까? 이들 질문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이미 2021년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지만 2022년 북한경제를 계기로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3. 2023년 북한경제 전망: 긍정적 vs. 부정적

이처럼 2022년 북한경제가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현재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의견들은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단순하지만 극도로 분명한 대답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2023년 북한경제를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이를 2022년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긍정적 전망은 크게 세 가지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북한경제는 이미 2022년에 최악의 저점을 통과하였다. 둘째, 북한경제 및 북한 당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많이 희석된 상태이다. 셋째, 북한의 대외무역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무역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도 코로나19를 의식하지 않는 적극적인 경제부양책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북한경제가 2022년에 비해 더욱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시작한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22년 말의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경제가 이미 2022년에 저점을 통과하여 2023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연결된다. 더욱이 북한경제는 이미 2022년에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경험하였고, 스스로 이를 극복했다는 자신감 역시 갖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2022년 하반기부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밀월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23년 북한의 무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내 경제 역시 활성화될 경우, 시장과 공식 경제 모두가 2022년보다는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예측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이러한 예측 역시 크게 세 가지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2023년 북한의 무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여전히 정체하거나, 소폭 늘어나더라도 상당한 요동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둘째, 무역의 변화와 더불어 거시경제 변수들의 불안정성 역시 더욱 커질 것이다. 시장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이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더욱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공식경제와 시장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본격화할 확률이 높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의 불만 역시 이제 단순한 경제 침체 현상에서 북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실망과 비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3년 북한경제는 2022년을 포함한 어떤 해보다도 더욱 불안정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2023년 북한경제 역시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위기의 국면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 하반기 북한의 무역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확산세 가운데에서도 중국 당국이 이전과 달리 해외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에 북한 당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만일 북한 당국이 과거와 같다면 당연히 더욱 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이다. 2020년 초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아예 국경을 차단해 버릴 정도로 북한은 이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고, 이러한 사례는 코로나19 이전의 사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전염성 질병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북한경제는 매우 어렵다. 또한 북한 스스로 이미 한 차례 코로나19의 확산 및 극복(?)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무역 확대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백신을 비롯한 관련 치료제와 의약품, 의료 시설 등이 북한에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등이 유입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2022년 중국과의 무역 확대 이후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경험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무역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적 교류를 최대로 배제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무역 확대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2022년 초반과 같이 무역 확대에 따라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무역은 다시 상당 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러시아와의 무역에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변수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이것이 러시아의 바람과는 다른 형태로 종결될 경우 러시아와의 무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적인 관계가 재검토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무역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역시 의문이다. 이 경우 2022년 상반기의 경험에서 보듯이 다시금 외화 환율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북한 원화로 표시한 시장 물가가 급등하는 등 거시경제 변수들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북한의 환율을 비롯한 거시경제 변수들은 북한 당국의 외화 금지 조치로 인해 매우 특이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무역의 부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환율 및 시장 물가는 급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외화 사용 금지라는 북한 당국의 정책을 포함하여 현재의 억압된 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불안정성은 아무도 예단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제한된 자원을 두고 북한 당국(공식경제)과 일반 경제주체(시장)가 서로 경쟁과 대립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 당국은 경제 전반의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식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원을 시장으로부터 국가의 통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일반 북한주민들은 무역이 봉쇄되고, 해외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는 한, 별다른 효과적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2023년 북한의 무역이 점차 늘어나고, 이를 계기로 해외와의 접촉이 확산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중국 등 해외 경제와의 사이에서 구축된 경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보유 자원을 국가의 탈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2023년 북한경제의 화두는 회복이 아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역 등 외부와의 접촉 증대라는 일견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일견 충분히 예상되는 기본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2023년 북한경제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의 회복이 아니라 불안정성의 증대라는 것이다.

##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2022년 북한경제의 모습을 진단하고, 2023년 북한경제를 간단히 전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북한경제의 거시경제 추세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북한경제의 전반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나타난 다양한 외부 관찰자들의 의견과 시각의 차이 역시 조명하였다. 그리고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 도달한 결론들을 집약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2016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2017년부터 북한의 무역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는 북한의 대외부문은 물론 국내부문에서도 소득이 하락하는 현상 역시 관찰되었다. 특히 2019년 들어 이러한 소득의 하락은 실질적인 통화량의 감소를 야기하는 통화 충격을 불러왔다. 북한경제는 이미 달러화되어 있어 달러 등 외화가 기본적인 통화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북제재에 따른 (외화)소득의 감소는 이러한 통화량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9년 북한의 시장 물가가 하락하여 시장거래가 침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2019년에 이르면 제재의 충격이 시장활동을 매개로 전체 경제 및 주민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상황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무엇보다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脫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외화 환율이 급락하고, 환율 체계가 국제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물론, 옥수수과 같은 식량가격이 급등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떠받치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기존 시스템의 작동 불능과 와해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하반기 보다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외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보고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외화 환율 급락과 쌀을 비롯한 식량가격의 급등 현상이 목격되었다. 그 결과 기존 북한경제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일부에서는 북한의 식량 위기 가능성마저 우려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셋째, 2022년 북한경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부터 북한 당국은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금 중국과의 무역을 증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였고, 국내적으로는 각종 토목 및 건설공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2022년 초반 북한경제에서는 무역규모가 다시 증대하는 등 잠시 활력이 돌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노력은 북한경제의 국내외 코로나19 위험 노출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만 500만명에 가까운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적극적인 지역 봉쇄와 같은 방역정책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시장을 비롯한 북한의 전체 경제활동이 일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2년 초반 잠시 온기가 돌았던 북한경제가 다시금 급격한 침체와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2016년 이후 2021년까지의 북한경제 추세와 연결해 보면 2022년 북한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판단이다.

넷째, 2022년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타났다. 2022년 북한의 무역이 증대가 경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외부 관찰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북한의 시장 물가와 환율 데이터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환율과 물가를 포함한 현재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들이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심화 되었다. 무엇보다 2022년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다섯째,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모두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보면 2023년 북한경제는 이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점점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의 무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경제교류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2023년 북한경제는 이전보다 더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증폭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2023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순조롭게 늘어날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설사 늘어난다고 해도, 이를 계기로 그간 억눌려 왔던 환율과 물가 등 각종 거시변수들이 부정적으로 급변하는 혼란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2년 북한경제는 양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나누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특히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 적어도 2020년 9~10월 이후에는 꾸준히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2023년 북한경제 역시 호전되지 않는다면, 북한경제의 위기 상황은 이제 3년을 넘기게 된다. 흔히들 북한경제의 내구력은 튼튼하고, 주민들은 고난과 궁핍에 익숙하며 순응할 줄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과 순응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2023년 북한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관심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